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0호 [루게 제25018호] 주제104(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 부서 책임일꾼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꾼들, 당중앙위원회, 내각, 대외부문의 책임일꾼들, 도당 책임비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혁명적조치들과 그 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토의되었다.

확대회의에서는 또한 라선시근골피해 복구대책문제를 토의하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하였으며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확대회의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국, 부서 책임일꾼들,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 국가안전보위,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꾼들, 당중앙위원회, 내각, 대외부문의 책임일꾼들, 도당 책임비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던 최극단의 정세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혁명적조치들과 그 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이 토의되었다.

에서 이번 위기사태의 전말을 상세히 통보하시면서 전시상태가 선포된 전선부대들의 군사작전준비과정과 준전시선포지역 안의 각 부문 사업정형, 북남고위급간담 접촉정형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번에 조성되었던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은 전국, 전민, 전군을 이끌며 정확한 자기의 명도력을 발휘했으며 정세의 난향을 예철 단호한 결심들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의 조국보위초소에 서있는 영웅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드립없는 조국사수와 혁명보위정신,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에 의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시는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목숨바쳐 사수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 뜨거운 조국애에 의하여 우리 조국

앞에 닥쳐왔던 위기가 우리의 발밑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위험천만한 사태는 평정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앞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여준 사랑하는 인민들과 전군의 영웅한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을 보위하여 천만이 총족탄이 되어 나서고 전선과 후방,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전쟁의 먹장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북남고위급 간담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접촉결과를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운명적인 시각에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면리익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그에 저촉되는 대화나 평화적 분위기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벼랑끝까지 닿은 교전직전에서 다시 되찾은 평온은 결코 회담탁우에서 얻은것이 아니라 위대한 우리당이 키워온 자위적력억제력을 증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력과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무적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이룩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세월의 강풍속에서 더욱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시령부를 조직하시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하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에 넘쳐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 산악같이 펼쳐나선 격조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와 풍성번영을 담보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 앞에 닥쳐왔던 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영을 지켜내고 온 겨레가 바라는 소중한 평화를 사수한 기쁨과 긍지,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더욱 굳게 뭉쳐 당창건 70돐을 향한 총돌격전을

군세여진 선군의 총대와 군민의 일심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근반담보라고 강조하시었다.

앞으로도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국가방위를 위한 군사력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 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합치게 벌임으로써 뜻깊은 율해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도반

사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에 꿋꿋이 충실한 청년전위들의 강한 정선력과 역설 기상으로 불멸의 위용을 떨치는 청년강국이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정면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는 청년전열을 더욱 단결하고 있다.

청년전열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승장구하여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한길로 용감무쌍하게 돌진하는 선군청년전위들의 용맹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는 혁명적명령이다.

지금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은 영광스러운 령도를 감회없이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쳐나갈 날라는 일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세시대의 역사적 진군에서 선군혁명적 계승자들인 청년들이 앞장에 설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청년중시의 령사, 불멸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령사이다. 일찍이 청년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을 빛내게 하시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의 쉼없는 불꽃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어머니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장군님 혁명영도의 전기간 청년들을 향구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로부터 높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의 품속에서 이 땅위에 청년중시의 숭고한 경륜이 펼쳐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이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혁명의 계승자로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역세게 자리잡은 조선청년들의 긍지와 영예는 끝이 없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중시정치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 4차 초급일대회 참가자들에게 령사적인 시한을 보내시어 청년들이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꿋꿋이 충실한 전위투사자 될데 대한 크나큰 믿음과 안겨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으로서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을 키워낸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을 높이 내세워주시는분도 우리의 원수님이다. 백두산선군혁명발전소건설장소를 찾오시고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청년들끼리 대원들의 위훈을 값없이 빛내어주시고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단방에 떨친 선군조선의 팔찌산전사들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가는 전위투사자로 더욱 든든히 준비되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세운을 높이는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이것이 오늘의 총공격전에 서 높이 들고나가는 수백만 청년들의 애국충정의 구호이다. 숭고한 사상정신과 비상한 전투력, 질풍같은 속도로 백승의 진군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궁지없는 세대, 선군의 불길속에서 역세게 성장한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다.

우리 청년들은 일련단심 당을 따라 백두로, 흰치레 앞으로 나아가는 전위투사자들이다.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청년들의 생명선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처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열렬의 혁명가들이 우리 청년들이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기를 새치게 지켜올리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과 단결력, 전투력은 선군시대 기적창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젊은 기록에는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대오를 곳곳이 걸어오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로 심장을 뛰고있고, 당이 가리키는 길로 역세게 나아가는 전위투사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자주권수호와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한몸 다 바쳐 싸우는 선봉대, 돌격대이다.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청년들의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조국의 위업에서 청년들의 영웅이며 조국의 존엄이자 청년들의 영예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춘의 리상과 포부는 선군조선의 국력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애국투쟁과 하나 잇닿아있다. 선군시대의 청년이라면 마땅히 혁명의 총대를 묶어잡고 조국보위의 제일선에 서야 한다는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1950년대 의 조국수호정신을 심장에 쏘아박은 선군시대 청춘들의 필승의 기상과 일대대의 용맹이 조국보위의 전초전사대에 차넣어지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대고조적정장들에서 세운을 감동시키는 청년미용사들이 수없이 배출되고있다. 이것은 청춘의 전위투사정신을 담은 청년정신과 전투적기개를 온 나라를 기적창조의 불도끼로 세세하게 쏘아부치고 하고있다.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만들려는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밀어붙여나가는 청년지식인들이고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뒤를 이어 누가

보건말진, 앉아주진말진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것도 우리의 남녀청년들이다. 조국앞에 지닌 자기 세대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인 믿음직한 청년대군이 있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장광하다.

우리 청년들은 고상한 정신과 인생관을 세차게 지켜올리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과 단결력, 전투력은 선군시대 기적창조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젊은 기록에는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대오를 곳곳이 걸어오면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언제 어디서나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로 심장을 뛰고있고, 당이 가리키는 길로 역세게 나아가는 전위투사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는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수 있다. 당의 령도는 청년들의 생명선이다.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들의 용감성과 단결력,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청년운동에 견인하고 고상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쁨에 비끼게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미래를 꿈꾸고있는 장년들의 「처녀어머니」의 소령,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향하는 대가리로 길이 밝아지고있다. 20살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척들의 정으로 애지중지하고있고 장년들의 「처녀어머니」의 소령,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향하는 대가리로 길이 밝아지고있다. 20살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척들의 정으로 애지중지하고있고 장년들의 「처녀어머니」의 소령,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향하는 대가리로 길이 밝아지고있다.

요양유성된 조선청년들의 특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서진 청년동맹기발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혁명의 불멸봉은 당을 따라 끝마르,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필승의 기치이며 영원한 신념의 표대이다.

모든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조선청년들의 용감성과 단결력,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적청년운동에 견인하고 고상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쁨에 비끼게 된다.

청년들은 나라는 민족의 귀중한 꽃이며 미래의 주인공이다. 민족의 양양한 전도와 사회의 혁명적분위기를 견인하고 고상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기쁨에 비끼게 된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는 미래를 꿈꾸고있는 장년들의 「처녀어머니」의 소령,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향하는 대가리로 길이 밝아지고있다. 20살 꽃나이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친척들의 정으로 애지중지하고있고 장년들의 「처녀어머니」의 소령,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향하는 대가리로 길이 밝아지고있다.

요양유성된 조선청년들의 특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서진 청년동맹기발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혁명의 불멸봉은 당을 따라 끝마르, 힘차게 나아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필승의 기치이며 영원한 신념의 표대이다.

에서 맞닥뜨는 강령들을 물러치고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자 한다. 청년들은 김정은대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여 이 땅위에 사회주의의 신성들을 떨치고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 수거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청년동맹은 선군혁명의 최후대, 당의 믿음직한 의용군이다. 청년동맹 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제제를 든든히 세우고 동맹초급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조직사상생활을 강화하여 혁명열, 투쟁열을 총괄발사시켜야 한다. 청년미용사들의 미덕과 미풍을 불세로 하여 온 나라에 공경상조의 불길기 세차게 퍼뜨리게 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사업을 당사업의 한부면으로 든든히 틀어쥐고 청년동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자립 10월의 대추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한다. 투철한 사상정신과 용감한 활동력, 질풍같은 속도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리며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하여 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적극 다그쳐 풀어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 제국강국건설의 선봉에 앞장서서 받들어나가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굽어보는 현대화 조부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을 지니고 최첨단과학의 신봉에서 용감하게 전진하는, 패권화전의 1번수가 되어야 한다. 패권화전의 정신력과 당이 제시한 발전사상공격전법으로 국제경쟁기름다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펼칠 힘내라! 백두산대군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개를 높이 떨치자.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 창조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 결속

70년의 년륜을 새기는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를 빛내이며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자랑찬 승리의 함성이 높이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를 피뎠는 심장마다에 새기고 애국충정의 결사전을 즐기차 벌려온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드디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완공의 관건적대상인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청년절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연제발전소 우안의 2호, 4호연제기공기가 혼합물수송로로 9블록, 14블록에 마지막혼합물을 장쾌하게 쏟아부었다. 다짐봉을 역세게 들어잡은 타입공들이 만년연제의 마지막부분에 대한 다짐작업을 붙이면서 나뉘고 다짐을 끝냈다.

정각 오전 11시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공사가 승리적으로 계속되는 환희와 격정의 순간 연제의 파우안과 연제하류의 곳곳에 모여있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머치는 우렁찬 《단세!》의 함성이 백두대지의 산발을 쪼개며 울리며 오해통단 높이높이 울려 퍼졌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공사를 앞당겨 결속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장전 일흔들까지 1, 2호 발전소건설을 끝내고 전역생산의 동음을 울릴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적으로서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크나큰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합니다.》

청년절을 앞두고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높이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며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모든 기적창조의 근원인력, 추동력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파시하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는 우리 나라 수력발전소건설력사상 가장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대상이다. 특히 기본대상인 1호연제는 해발 1000m 이상의 심혈을 가르지는 시공상 매우 복잡한 수백m길이의 2중아치형콘크리트연제이다. 세멘트를 비롯하여 건설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백리 떨어진 철도역으로부터 날라와야 하며 더우기 백두대지의 엄혹한 추위로 1년에 일어난다는 일도 4월 중순까지만 하여도 연제콘크리트타입은 총공사량의 2/3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연제높이로 볼 때 평균 30cm를 더 쌓아야 하였다.

바로 이러한 배인 지난 4월 19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하루빨리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이곳 발전소건설장에 대한 현지지도를 진행하시었다. 력사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년동맹에 통제로 맡겨주신 발전소건설을 당장전 일흔들까지 무조건 끝낼것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하시며 백두대지의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청년돌격대원들이 이룩한 크지 않은 성과를 청년강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담아야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청년돌격대원들이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짱, 항일 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해해주었다.

남에남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는 백두전역의 투쟁소식을 보고받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년절까지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을 결속하면 또 하나의 조선속도를 창조하는것으로 된다. 온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병도의 전기간 수놓아오신 우리 당의 70년 청년강국건설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현명한 명도밑에 혁명의 진구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새로운 조선속도, 영웅적신화가 탄생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놓았다.

불과 이날 남짓한 기간에 1호발전소 연제건설장에서는 지난 9년간 한해평균타입량의 5.5배이상, 최고타입량의 2.2배이상의 콘크리트 타입이 타입이 기록되었고 전반적연제가 4월말에 비하여 평균 30cm나 장성하여 자기 높이에 우뚝 올라갔다.

1호연제콘크리트타입의 결속과 더불어 백두대지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 승리의 함성, 그것은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오늘날도 신뜻 믿기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련단들과 건설자들의 고마움의 인사, 크나큰 격정의 분출이었다.

방대한 1호발전소 연제콘크리트타입을 빛나게 결속한 오늘의 승리는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 결사판결해나가며 전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이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치열한 사회주의경쟁영웅으로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발전소완공날자를 무조건 보장하자, 이런 애국충정의 맹세, 결사판결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펴벌이려는 새로운 시대에 담아야 한다는 평가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전체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백두산악과도 같은 억센 신념과 배짱, 항일 투사들이 지녔던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해해주었다.

하기에 앞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청년절까지의 날자를 하루하루 쪼개어 일종콘크리트타입이 정해졌다.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전투력있는 련단들이 3만㎡이상에 달하는 연제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과 제를 맡고 새로운 전투전지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연제콘크리트타입은 전혀 생소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그들의 심장마다에 결사판결의 의지가 더욱 세차게 끓어오르게 하였다. 각 련단별로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맡고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기 세계가 타오르는 속에 집단적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함정남도려단 지휘관들이 청년돌격대원들의 정진력을 최대한 분출시키려는 최선적시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작업공정법에 따르는 로력조직과 시공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하루평균 170㎡, 최고 300㎡이상의 타입실적이 기록되어 련단은 5월전투목표를 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 련단별 첫 사회주의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련단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양양전구 기세, 그 기백으로 6월에 이어 7월에도 공격속도를 비상이 높이여 달리고 또 달려 연제타입에 인입된다. 모든 련단들의 작업량을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1만 8000㎡의 우안지지대타입과제를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여 전진한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결정적기여를 하였다.

5월전투목표를 1.5배이상 넘쳐 수행한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6월에 들어와 우안중력부의 5개 블록에서 연속타입을 더욱 기세차게 들어들었다. 당앞에 맹세하던 완공의 그날을 앞당길에 5만㎡의 물품을 제때에 처리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가장도려단, 평양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연제 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전에서 혁신을

먼저 울려세우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황해북도려단이 맡은 파우안연제콘크리트타입전투에서도 백두정충들의 대단한 공격정신이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련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제돌격정신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나투로 혼합물수송로를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콘크리트타입속도를 부쩍 끌어올렸다. 불가능을 모르는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기를 남김없이 파시하며 2세한 공격전을 연속 들어대어 련단은 6월 18일에는 파우안지지대타입을, 7월 12일에는 아치형연제의 23블록타입을 끝냄으로써 현상현황지휘부에서 하달한 전투명령을 한달반이상 앞당겨 결속하였다.

청년절까지 내세웠던 파우안지지대, 중력부타입과제를 한달이상 앞당겨 끝낸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은 현상현황지휘부의 기동적인 작전에 따라 7월 하순부터 아치형본연제의 파우안에서 편이 콘크리트타입전투에 달려붙었다.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함경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 황해남도려단, 함경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들과 협동작업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끊임없는 공격전을 들어대어 기본연제파우안의 15, 17, 19, 21블록과 우안의 18, 20, 22, 24블록콘크리타입을 결속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공제와 세멘트보장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연제콘크리트타입을 앞당겨 결속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광양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세멘트상하차적업을 전적으로 맡아 5만㎡의 물품을 제때에 처리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가장도려단, 평양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연제 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전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세멘트상차를 비롯한 발전기 전투인무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남포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방대한 량의 골재보장전투 임무를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대대,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대대, 남포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너달도 안되는 기간에 백두대지의 멀고 험한 운행길을 헤쳐며 자동차 한대당 최고 2만km, 평균 1만 수천km의 총정의 주로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증상의 정적소리를 높이 울렸다.

건설전제공급성아래 여러 건설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정충들과 발맞추어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의 한해지를 자랑스럽게 수행하며 1호연제 아치형부분콘크리트타입에서 전제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건설전제공급성아래 여러 건설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정충들과 발맞추어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의 한해지를 자랑스럽게 수행하며 1호연제 아치형부분콘크리트타입에서 전제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앞에 결의다진 하루 1000㎡의 타입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총동원격적인 5월 중순부터 치밀하게 벌여졌다. 성책일일꾼들의 작전에 따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선별, 혼합공정의 기술개선과 보수전투가 립체감을 안고 함경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 황해남도려단, 함경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들과 협동작업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끊임없는 공격전을 들어대어 기본연제파우안의 15, 17, 19, 21블록과 우안의 18, 20, 22, 24블록콘크리타입을 결속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공제와 세멘트보장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연제콘크리트타입을 앞당겨 결속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광양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세멘트상하차적업을 전적으로 맡아 5만㎡의 물품을 제때에 처리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가장도려단, 평양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연제 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전에서 혁신을

애국헌신의 나날들로 수놓아왔다. 선별, 혼합공정을 지켜선 로동자들은 혼합물생산이 끝난 연제높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호를식생산공정의 승결과 임무를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운수대대,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대대, 남포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도 너달도 안되는 기간에 백두대지의 멀고 험한 운행길을 헤쳐며 자동차 한대당 최고 2만km, 평균 1만 수천km의 총정의 주로를 끊임없이 이어가며 증상의 정적소리를 높이 울렸다.

건설전제공급성아래 여러 건설단위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백두정충들과 발맞추어 우리 당의 청년강국건설사의 한해지를 자랑스럽게 수행하며 1호연제 아치형부분콘크리트타입에서 전제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당앞에 결의다진 하루 1000㎡의 타입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총동원격적인 5월 중순부터 치밀하게 벌여졌다. 성책일일꾼들의 작전에 따라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선별, 혼합공정의 기술개선과 보수전투가 립체감을 안고 함경남도려단, 황해북도려단, 황해남도려단, 함경북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전문건설단위들과 협동작업으로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끊임없는 공격전을 들어대어 기본연제파우안의 15, 17, 19, 21블록과 우안의 18, 20, 22, 24블록콘크리타입을 결속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공제와 세멘트보장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싸우는 고지에 포탄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연제콘크리트타입을 앞당겨 결속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광양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의 세멘트상하차적업을 전적으로 맡아 5만㎡의 물품을 제때에 처리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가장도려단, 평양시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연제 파우안의 중력부, 지지대타입전에서 혁신을



글 및 사진 현지도보단

장시

청년강국의 새 전설

한 동 선

사람이 두 시절을 함께 살 수 있는가

청년시절 지나서 어머니 되고 어머니라 불리우면 처녀라 아니하

내 나라 아니며는 그 어디에 있나라

아, 해님의 속박받은 《처녀어머니》

1

멀고먼 옛날 선녀들이 내뿜었다는 강선땀을

천리마 날아오른 기적의 전설도

팔배하는 풍경은 이 기슭을 떠난지도 오래전만

타박타박... 내 마음속을 걸어

너였구나 온 나라가 다 아는 《처녀어머니》!

무슨 일로 팔배하러 예까지 나왔느냐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그런 때면 와르르... 무너져내리던 내 마음

그렇게 허물어간 팔배무지

손목잡고 한 아이 등에 업고 또 한 아이...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았고

어려웠구나 얼마나 그 마음은

잠든 애들 추운새라

아이들 발그릇에

자기 발을 더 얹어주고

무엇이 나 어린 너의 심장을

너는 남다른데 없는 이 나라의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집집마다 쌀독이 풀아갈 때에도

간직되어있었다 내 마음속엔

그네들속에서 너는 배웠이라

희나 다 알았더니 한 자식

다만... 처녀의 가슴엔

그리고 또... 있었구나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그리고 또... 있었구나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가장 뜨겁고 가장 고귀한

웃음보다 더 고와라

청년들의 마음이 하도 정갈해

지들지들 노래하며 흘러가는

미안하다 처녀야 이 마음

어제서야 수줍은 네 마음

가치많은 나무에 바람갈 날

저녁마다 한구름 모여앉으면

아, 어이하어 나는 두부를 눈물로 적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아,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게

일터와 가정 초소와 마을들에서

황금날카리우에 올라앉아

그리고 함께 다 안아주고 싶으시다

풀으며 리번지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아, 사랑하는 우리의 해님이시여

청년들 우리 힘은 당신이 주신

분출하는 청춘들의 한없는 열정

이들이 일꾼이나 거느렸건만

이 세상 가장 파스한

이 세상 가장 파스한

분명 너는 어머니구나

아름다와라 다독이며 다독이며

고생많은 어머니조국의 큰 짐을

이 처녀도 아이들은 노래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저녁마다 한구름 모여앉으면

아, 어이하어 나는 두부를 눈물로 적시는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아, 온 세상 아이들이 부러워하게

일터와 가정 초소와 마을들에서

황금날카리우에 올라앉아

그리고 함께 다 안아주고 싶으시다

풀으며 리번지며 하늘땅을 뒤흔드는

아, 사랑하는 우리의 해님이시여

청년들 우리 힘은 당신이 주신

분출하는 청춘들의 한없는 열정

이들이 일꾼이나 거느렸건만

이 세상 가장 파스한

이 세상 가장 파스한

처녀도 어머니 되는 사회주의

《세상에 부럼없어라!》

...아, 그날 그 시각

청년들 제일 아끼시는분

어려운 일 힘겨운 일에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이름이여 영광의 상사봉에

위대한 인간애로 뜨거운

...아, 그날 그 시각

청년들 제일 아끼시는분

어려운 일 힘겨운 일에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위대하다 아름다우시다

천리마의 고향에 저녁노을

원저고리교목은 땀기처럼

청춘들이 빛내어온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수령님들 품속에서

북과 남은 고위급진급접촉의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 기자의 질문에 대담

【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8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양건동지는 최근 북남고위급진급접촉이 진행됐고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일련진바와 같이 북과 남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고위급진급접촉을 가지고 최근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수습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하는데 기초하여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북과 남사이의 무역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관계 발전을 도모해나가는 쌍방의 의사와 입장이 반영되어있다. 이번 접촉을 통해 조성만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통한의 소용돌이속에 불안정성을 주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해소되고 북남사이의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위협적인 안위 상황에서 서로 마주앉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공동보도문에서 합의된 것들 중 북과 남은 당국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발전 시켜 서로의 편파성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하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나가기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떻게 마련하여

관화의 길로 풀려세은 현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처럼 북과 남이 원인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밀려들어서 정세를 악화시키고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밀려들지 않았어야 하였다. 쌍방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찾고 북남사이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리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것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야 한다. 북남관계의 급속한 발전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대해 각성있게 대하여야 한다. 그러한 전제에서 북과 남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 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리의를 전철히 고수해나가기 한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토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굳히겠다. 우리는 이번 북남고위급진급접촉의 합의정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다.

연회 마련

헬남특별전권대사 국경절에 즈음하여

연회 마련

헬남사회주의공화국창건 70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

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은 리수용의무상, 막근 평, 김형룡, 리경성 등 관계부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김봉화, 최진욱, 리철성을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 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조선중앙통신】

